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 명	

◆ 유 의 사 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글을 쓰는 행위는 창조 행위입니다. 작가는 하나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세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작가의 내면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낼 때 작가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이 잘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렇다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작가는 그렇지 못한 작가보다 행복할까요? 그 절대적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꺼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중략>

고등학교 시절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소설이란 있을 수 있는 허구다.' 그때, 거대한 벌레로 변해 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카프카의 『변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맞지 않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가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작품을 작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작가만이 아닙니다. 독자가 작품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나의 작품은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소설 작가인 스티븐 킹은 글쓰기를 '정신 감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작품을 통해 수천 년 전의 작가와도 정신적인 감응을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작가들이 했던 말에 아직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대체 그들이 남긴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나는 책 속에서 소리를 듣는다. 머나먼 북쪽 변방의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 먼 옛날 가을 귀뚜라미 소리가 책에서 들린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 두보는 귀뚜라미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다.

서글픈 거문고와 거세게 떨리는 피리 소리
그 곡조도 따르지 못하는 이 천진함! -두보, 「귀뚜라미」에서

사람들은 흔히 귀뚜라미 소리를 서글프다거나 애절하다고 하지, 천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운다는 것도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실어 그렇게 표현할 뿐, 귀뚜라미는 그저 앞날개를 열심히 비비며 소리를 낼 뿐이다. 밤새도록 계속되는 그 움직임은 무척이나 진지해 고지식해 보이기까지 한다. 너무나 진지해서 천진하고, 천진하기에 맑아, 우리 몸에서 가장 맑고 가느다란 감정의 핏줄과 쉽게 섞이는 것이 아닐까.

두보의 시를 읽으며 나는, 내 핏줄이 떨리는 듯한 귀뚜라미 소리를 새롭게 듣는다.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덩달아 나도 천진해지고 맑아지는 기분이다. 책 속에는 또 사람의 목소리가 있다. 세상살이와 사람살이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있고, 그늘진 신세를 한탄하는 울적한 목소리도 있다.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노니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구나.
창밖은 한밤중 비가 내리는데
등불 앞 내 마음은 만 리를 달리네 -최치원, 「가을밤 비는 내리고」에서

천 년 전, 신라의 문장가 고운(孤雲) 최치원의 목소리이다. 그는 열세 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당나라에서 유학하였다. 그곳에서 보장된 출세도 마다하고 돌아왔지만, 쇠하여 가는 어지러운 신라는 꿈에 그리던 고국이 아니었다. 한밤중,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천 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내 마음을 적신다. 나는 가만히 그의 목소리를 되뇌어 본다. 세상에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적구나. 나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달리 들어줄 사람이 없어, 책에다 대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틀림없이 외로웠을 것이다. 나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내 목소리로 들려준다. 그럴 때면 누군가 가만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 같다.

[다] *The Help* is a novel by an American author named Kathryn Stockett. It is a story about African-American maids working in white households. The book is set in Jackson, Mississippi, just before the Civil Rights Act was passed in 1964. The story is told mainly by three women: Skeeter, Aibileen, and Minny.

Skeeter is a daughter of a rich white family. Her mother wants her to get married like her friends, but Skeeter wants to be a journalist. It is beyond what was expected of a Southern white woman in the 1960s. Aibileen is an African-American maid. She raises white families' children only to see them grow up and leave her. Minny, Aibileen's friend, also works as a maid.

These three women work together and write a book, *The Help*, to tell the stories of African-American maids. While they are working together, a friendship develops across races and social status. <중략>

Aibileen and Minny persuade other maids to tell their stories. Their book, The Help*, is eventually published and becomes a bestseller. However, Aibileen gets fired from her job because of the book.*

Aibileen: As I walk down the street, I think about what I'm going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It may be hard for me to continue as a maid. I feel tears falling down. At the same time, I feel free. Maybe I can be a writer. Maybe I'm not too old to start over. I can keep writing about the people I know and the things I've seen and done.

Thanks to the courage of these ordinary women, the world learned about the unfair treatment suffered by African-American maids.

[라]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다음과 같으니, 경서로는 『역경』, 『서경』, 『시경』,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대전(大全)이 모두 50책이 있고, 역사서로는 『한서(漢書)』 3종 총 88책이 있고, 제자서(諸子書)로는 『주자대전(朱子大全)』 60책이 있고, 문집으로는 『전당시(全唐詩)』 120책과 『고문연감(古文淵鑑)』 몇 책이 있다. 이 책들이 있는 서재에 편액을 걸어놓고 '서소(書巢)'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자 친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군자는 올바른 처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름을 얻는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네. 자네는 책으로 서가 하나를 다 채우지도 못했으면서 아득한 옛날의 육유(陸游) 선생에 자신을 빗대었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자네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였는가? 잘사는 사람은 작은 집에서라도 시서(詩書)를 읊조릴 수 있고, 좁은 마당을 가진 집이라도 자손에게 물려줄 만하네. 잘살지 못하는 사람은 크고 화려한 집에 살더라도 촛불을 켜 놓고 책 한 번 보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네. 비록 내 책이 적기는 하지만, 요순우탕(堯舜禹湯)과 문무주공(文武周公)의 도(道)가 실려 있고, 역사에 대한 반고(班固)와 범엽(范曄)의 판단이 드러나 있으며, 대지가 만물을 떠받치고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는 듯한 주자의 학문이 실려 있고, 진나라 한나라 이래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작가들의 모범적인 작품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네. 내가 좌우에 그 책을 꽂아 놓고 종신토록 그 안에 머물러도 충분할 것일세. 군자에게 꼭 책이 많아야만 하는가? 많지 않아도 되네."

[마]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은 거대 인터넷 회사와 손을 잡고 총 900만 쪽에 이르는 15세기와 16세기의 인쇄물, 그리고 17~19세기의 서적 중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서적 총 2억 5천만 쪽을 스캔했다. 현재까지 30만 권의 책이 디지털화되었고, 이에 따라 곧 그림 형제, 괴테, 실러, 레싱, 하이네, 칸트를 비롯해 여러 위인들의 작품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바이에른 주립 도서관 관장은 들뜬 목소리로 "디지털화로 우리 도서관을 전 세계로 개방하게 된 셈이지요."라고 설명했다.

요즘 대부분의 대형 도서관은 저작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도서를 스캔하여 보관한다. 심지어 바티칸 도서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사본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4세기에 제작된, 양피지에 쓴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바티칸 성서 사본과 교황 호노리오 3세의 프란체스카 수도회 승인서,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자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국내외 도서관과 박물관, 독일 국내 기록 보관소 3만 곳을 연계하여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유럽의 경우는 유로피아나라는 전자 도서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그리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전체의 다양한 문화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중략>

18세기 유럽 정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의 하나는 편견과 이데올로기,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사고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백과사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화된 도서관은 거대한 전자 백과사전과도 같다. 1953년에 발표된 칼비노의 소설 『도서관에 있는 장군』을 보면 군사는 독서를 통해 똑똑해질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인간성을 육성하는 학교로서의 도서관은 21세기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무릇 글을 읽는 이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반듯하게 앉아서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오로지하고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오래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터득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 본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입으로만 글을 읽을 뿐 자기 마음으로는 이를 본받지 않고 또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되고 말 것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으랴? <중략>

5서(五書), 5경(五經)을 반복하여 익히 읽어서 이해한다면, 그대로 의리가 날로 밝아진다. 그런 다음 송(宋)나라 선현이 지은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심경(心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와 그 밖의 성리(性理)에 관한 학설을 틈틈이 정밀하게 읽어, 의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젖어들어 잠시라도 끊어짐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또한 역사서를 읽어서 고금(古今)에 통하고 일의 변하는 이치에 통달하여 식견을 길러야 하며, 이단(異端)과 잡류(雜類)의 바르지 못한 글은 잠시라도 보아서는 안 된다.

[사] '이제 돌아가면 사르트르를 만나 봐야겠다. 카뮈와의 논쟁을 한 번 더 읽어 보고 심판을 내려야지.' 또는 '사로얀의 『인간 희극』을 읽고 내 마음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어야겠다.' 또는 '옳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가운데 나폴레옹이 목욕하는 장면을 챙겨 봐야겠다.' 또는 '메를로퐁티가 쓴 테러리즘에 관한 에세이를 읽어야지.'

서재에 들어서면 전등이란 전등은 죄다 켜 놓고 장군이 열병하듯 서가를 둘러본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책이 말을 한다. "너 요즘 날 괄시하는구나." 하고 입센이 말할 때도 있고, "너 날 퇴색한 작가라고 생각하면 잘못이야." 하고 발자크가 투덜댈 때도 있고, "내가 쓴 책을 죄다 읽고 나서 나에 관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드골이 신경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호소를 나는 생존자의 특권적 태도로 검토를 하고는 거룩한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을 빼 들고 책상 앞으로 간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마천, 헤로도토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제퍼슨, 링컨 등을 한꺼번에 꺼내 놓고 서로 토론을 시키기도 한다. <중략>

지적인 생활이란 언제나 최고를 선택하는 생활이다. 사상의 최고, 행동의 최고, 취미의 최고. 불행의 시궁창 속에 빠져 있어도 인간의 위신을 지킬 줄 알고 더욱 아름다운 것, 더욱 착한 것을 지향할 줄 아는 생활을 뜻한다. 비록 철인(哲人)이 될 수는 없어도 철학의 은총 속에 살고, 비록 예술가가 될 수는 없어도 예술의 향기 속에 살 수 있는 비리(秘理)*가 지적 생활에는 있는 것이다.

* 비리(秘理): 비밀스러운 이치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글쓴이가 시를 감상하는 방식을 분석하시오. [30점]

2 제시문 [다]에 언급된 *The Help*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책이 Aibileen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 [30점]

3 제시문 [라] ~ [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시문 [라]의 '서소'와 제시문 [마]의 '디지털 도서관'을 대비하시오. [20점]

(2) 제시문 [바]와 [사]에 나타난 독서법을 비교하시오. [20점]